

KREI리porter 3월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리porter 활동 안내
-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11:30~14:10
- 장 소: 전남 나주시
- 참 석: 총 13명
 - 전남지회 리porter(9명): 김종근, 나종주, 남양완, 노응곤, 신규호, 이상목, 이인, 이재월, 이행철
 - 연구원 관계자(4명): 김용렬 실장, 이정민 팀장,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2:30	점심식사	쉐프의 집밥(상야2길 16 2층)
12:30~12:40	이동	연구원 세미나실(빛가람로 601 1층)
12:40~12:50	견학	KREI 역사관 '길'
12:50~14:10	간담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등

2. 주요 내용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 이재월: 7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된다고 한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남양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세가 많아도 건강한 분들은 운전이 문제가 없다. 적성검사 등을 통해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인: 아직 권고사항일 뿐 운전을 하지 말라는 강제성이 없다.
 - 홍창수: 언론에서 너무 농촌 고령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 도시

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고령자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농촌과 고령자,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낮추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이행철: 도시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신규호: 고령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며 강요할 수는 없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마을 간 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하면 좋겠다.
- 이인: 우리 군에서는 미니버스를 지원해 2~3가구 있는 마을에도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

- 이인: 고추 따기를 하는데 여성 1인당 1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래도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밭에 채 따지 못한 고추가 남아 말라비틀어지는 실정이다.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들도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원한다. 벼농사와 같이 기계화된 농업은 인건비 지출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과수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하는 곳이 많다.
- 노용곤: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농작업 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일을 알려주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조건 등 법적 문제를 완화하고 사전교육을 시행해 좀 더 나은 근로 형태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 미세먼지 발생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이인: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른다. 도시에서는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일상적이지만 농촌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 노웅곤: 도시 근로자는 대부분 실내에서 근무하고, 농업인은 농경지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미세먼지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팜 혁신벨리에 대한 의견

- 김용렬: 스마트팜 혁신벨리는 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반대의견이 많다. 정부에서는 대량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통하지 않고 교육 기반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농업인 입장에서 과잉생산과 대기업 잠식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노웅곤: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이 자동화되고 개선되는 점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 주도하에 단지화, 공장화로 인한 대량 뽑아내기 식으로 무리한 확장은 우려된다. 국가적 이슈로 크게 키울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의 작은 규모에서도 노동 대비 효율을 높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현실성 있는 스마트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한 의견

- 이상목: 산지폐기는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정부의 후발 대책이다. 선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품목별 조직을 운영해 생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율감축량을 정해 생산하는 것은 현재 몇 품목뿐이다. 모든 농산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가장 황당한 일은 내 밭에 내 양파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격폭락으로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양파를 캐다 팔 수 없으니 내 밭에 거름이라도 되라고 버리면 환경부 단속에 걸린다.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대형 쓰레기차를 이용하려면 70만 원씩 줘야 한다. 농산물은 별도 '농산물폐기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자조금을 만들어 스스로 조직을 키워 자

율감축을 병행하면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자율감축과 수매, 폐기비용 지원 등으로 산지 폐기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 노웅곤: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품목별 조직의 역할도 아직 부족함이 많다. 과수는 대부분 다년생이라 국내 생산 및 소비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배추, 무 등 일년생은 기상여건에 따라 생육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종자회사에 판매되는 종자량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예측하면 어떨까?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관측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인: 친환경 아로니아를 생산하고 있다. 매년 20~30톤을 생산하는데 올해는 6톤이 재고로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 폐원하면 평당 2천 원의 값을 쳐준다고 하는 말에 묘목 값도 안 나오는 대책으로 어떻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 스마트팜으로 대량 농산물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 농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이인: 대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농촌에도 땅만 소유하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많다. 사실상 1차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공, 유통을 해도 농업인이라고 지칭한다. 1차 생산은 가공과 유통 등 업연히 직업상 다름이 많으며, 정책 대상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1차 생산자를 '농민'으로 2차, 3차 생산자와 구분해주어야 한다.
- 남양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주가 갖는 경우가 많다. 직불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임대농과 전업농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김종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직불금을 받기도 하지만 농지를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까지 한다. 9년 이상 자경 시 조건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을 노려 본인이 농사하는 것처럼 임대농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다.

2) 전남지회 활성화 방안

- 남양완: 전북, 경남지회 등과 연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 김용렬: 농정이나 품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연구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섭외해 오늘 같은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노용곤: 참석자가 적다고 아쉬워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잘 이끌어 주면 될 것 같다. 좋은 조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회원들도 따라와 줄 것이다. 오늘과 같이 이슈를 정해 토론하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면 좋겠다.

3) 리포터 활동 안내

▶ 사랑방 사이트 '네이버 계정' 로그인 방법

- ① 사랑방 사이트에 접속한다.
 - 연구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리포터 사랑방' 클릭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 (<https://reporter.krei.re.kr/>)
- 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한다.
- ③ 메인화면에 뜨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한다.
- ④ 팝업창이 뜨면, 나의 네이버 계정(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으로 로그인 한다.
- ⑤ 이메일 수집에 '동의'를 체크한다.
- ⑥ 팝업창이 사라지면, 메인화면에 뜨는 '회원가입' 란에 이름, 리포터 번호를 기입하여 인증한다.
 - 리포터 번호는 연구원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R로 시작하는 여섯자리)임.
- ⑦ 다음부터 접속할 때에 나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접속한다.

▶ 리포터 밴드 이용 방법

- ① 스마트폰 'Play store'에서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 ② 네이버,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다.
- ③ 연구원 담당자가 보내 온 초대장의 URL 주소를 클릭해 초대에 수락한다.

▶ ‘현장의 소리’ 제출 방법

① 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모든 게시물 읽기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나, 글쓰기는 회원만이 이용 가능

② 메인화면에서 ‘리포터창’ 또는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한다.

③ ‘리포트 제출’을 클릭하고 하단의 ‘글쓰기’를 클릭한다.

④ 농업·농촌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작성하고 ‘등록’을 누른다.

▶ 설문조사 참여 방법

① 연구원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진행 문자를 받고, 이메일을 확인해 ‘설문시작’을 눌러 문항에 응답한다.

- 문자에 URL주소와 함께 온 경우, 모바일에서도 참여 가능

② ‘설문종료’를 눌러 응답결과를 제출한다.

3. 이모저모

